

#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2</sup>

金尙賢<sup>1, 2</sup>, 白裕相<sup>1, 2</sup>, 丁彰炫<sup>1, 2</sup>, 張祐彰<sup>1, 2</sup> \*

## A study on Samchobyeonjeung(三焦辨證) of 『OnByeongJoByeon(溫病條辨)』

Kim Sang-hyun<sup>1, 2</sup>, Baik You-sang<sup>1, 2</sup>, Jeong Chang-hyun<sup>1, 2</sup>, Jang Woo-Chang<sup>1, 2</sup> \*

<sup>1</sup>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Byeon Jeung[辨證], which is to differentiate symptoms is a process of assessing the patient's condition. And like any other differentiation system, a certain pathological perspective is embedded. In Onbyeonghak(溫病學), new Byeon Jeung systems were designed to complement the insufficient, existing perspectives on acute epidemic febrile diseases. Oguktong(吳鞠通)'s Samchobyeonjeung(三焦辨證) is one of these newly designed systems. Though the meaning of Samchobyeonjeung varies among Onbyeong(溫病) researchers, they stand on common grounds of differentiating damp-heat disease[濕熱病]. However, Oguktong(吳鞠通) clearly demonstrated this system on epidemic febrile diseases. Researchers have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Oguktong(吳鞠通)'s approach, but thorough analysis of the subject has been insufficient. In this study, I have primarily studied the meaning of Samchobyeonjeung by analyzing 『Onbyeongjobyeon(溫病條辨)』, followed by assessment of negative and positive aspects.

**Key Words** : Samchobyeonjeung(三焦辨證), Onbyeongjobyeon(溫病條辨), Oguktong(吳鞠通), Jeonggi(精氣), Jang and Bu(臟腑)

## I. 序論

辨證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변별하는 일종의 강령이다. 그리고 어떤 辨證體系이건 간에 病機에 대한 관점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五藏辨證은 五藏을 중심으로 病機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治法을 제시하며, 六經辨證은 三陰三陽을 중심으로 病機를

해석하여 治法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각의 辨證體系는 나중에 그 범위가 확장되었을지라도 애초에 外感이나 內傷 등과 같은 효과적으로 辨證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하여 발전하였다.

溫病學 또한 마찬가지이다. 急性 熱病에 대하여 기존의 辨證體系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겨 새로운 辨證體系를 창출해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이다. 衛氣營血辨證은 清代의 의학자인 葉天士가 체계화하였고 三焦辨證은 清代의 吳鞠通이 체계화하였다고 알려진다.<sup>1)</sup> 실제로는 葉天士

\* 교신저자: 張祐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jangchang@khu.ac.kr Tel: 02-961-0735

접수일(2011년 2월 21일), 수정일(2011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1) 崔三變, 朴贊國, 洪元植.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관한 연구. 慶熙韓醫大論文集. 1987. 10. p.446, 449.

또한 三焦辨證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吳鞠通은 그것을 계승하여 『溫病條辨』 내에 三焦의 편제 하에 9종의 溫病을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을 연구하면 吳鞠通의 溫病에 대한 사유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三焦辨證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溫病學者들 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에 나와 있는 溫病學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崔의 『溫病學』에서는 濕熱病的辨證에는 三焦辨證이 衛氣營血辨證보다 合理的이어서 衛氣營血辨證이 濕熱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한 것이라고 하였고,<sup>2)</sup> 『實用 溫病學』에서는 三焦辨證이 기계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임상 의 실제와는 차이가 나며 濕熱病의 설명에 대해서는 ‘水濕下流’라는 특성에 근거하여 三焦의 辨證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였다.<sup>3)</sup> 중국의 溫病學者들 또한 三焦辨證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溫病四大家 中 한 사람인 王孟英은 『溫熱經緯』에서 濕을 끼는 溫病의 경우에는 上焦에서 溫病이 시작된다는 규율을 어길 수 있다고 하여 오히려 濕熱病에 대한 三焦辨證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고,<sup>4)</sup> 『溫病縱橫』에서는 三焦辨證 속에 衛氣營血辨證을 삽입하는 바람에 요점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濕熱病의 辨證에 있어서는 三焦辨證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sup>5)</sup>

三焦辨證에 대한 논의의 관점이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언급한 부분이 濕熱病을 辨證하는 데에는 유용하다는 부분이다. 분명 吳鞠通은 『溫病條辨』의 기술을 三焦로 綱을 삼되 크게 溫熱病類와 濕熱病類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溫病에서 유래하는 暑病에 대해 언급하면서 暑邪는 濕을 겸하기 쉽다고 하였고, 陰邪인 濕이 끼는 暑溫, 濕溫 등은 溫病의 부류로 보더라도 溫病의 治法과는 또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6)</sup> 그래서 上焦篇, 中焦篇,

下焦篇에서 전형적인 溫熱邪로 인한 질환은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의 편제로 묶어 기술하였고,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두어야 할 暑溫, 伏暑, 濕溫, 寒濕, 溫瘧, 秋燥는 각기 따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溫熱病類에 대하여 三焦辨證을 통해 辨證 하였다는 점이고, 기존 溫病學者들이 溫熱病에 대한 三焦辨證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됐다는 부분이다. 때문에 『溫病條辨』을 분석하여 三焦辨證의 의미를 도출해내고 그 후에 장단점을 따져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로써 언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단행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서적들의 논지가 일반적이다. 국내 학자들의 논문 중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李가 張仲景의 三焦認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三焦가 인체의 부위를 의미하고 濕熱邪가 上部에서 下部로 전변된다는 인식에서 吳鞠通의 三焦辨證과 유사한 맥락이며 비록 吳鞠通의 三焦辨證이 劉完素의 三焦辨證을 따랐다고 하지만 『傷寒論』이 미친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sup>7)</sup> 그러나 吳鞠通의 三焦辨證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없이 도출한 결론이라서 구체적인 근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曹는 吳鞠通의 醫學思想 연구를 통해 三焦辨證도 다루면서 病位의 구분, 傳變, 治療면에서의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衛氣營血辨證과 결합된 전면적인 辨證이라고 평가하였다.<sup>8)</sup> 『溫病條辨』에 나타난 三焦辨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잘 정리된 면이 있으나 三焦의 의미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중국의 溫病學者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李는 吳鞠通의 溫病 三焦辨證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고찰하면서 三焦辨證은 病位의 분별이 상세하며 衛氣營血辨證과 六經

2) 崔三燮, 朴贊國. 溫病學. 서울. 성보사. 1989. p.61.

3) 金南一 外 11名. 實用 溫病學. 서울. 정담. 2001. p.73, 74.

4) 金南一 外 11名. 實用 溫病學. 서울. 정담. 2001. p.73, 74.

5) 趙紹琴, 胡定邦, 劉景源 編著, 이용범, 신영일, 방정균, 정창현 譯. 國譯 溫病縱橫. 경기도 과천시. 집문당. 2006. p.49, 50, 338.

6)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천시. 집문당. 2004. p.532. “經謂先夏至爲病溫, 後夏至爲病暑. 可見暑亦溫之類, 暑自溫而來, 故將暑溫、濕溫并收入溫病論內. 然治法不能盡與溫病相同, 故上焦篇內第四條謂: 溫毒、暑溫、濕溫不在此例.”

7) 이경호, 안규석. 장중경의 삼초 인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1. 6. p.218.

8) 조성규. 吳鞠通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pp.56-67, 124-125.

辨證의 장점을 결합하여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 外感病辨證綱領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였다.<sup>9)</sup> 그러나 간략한 정리에 그쳐서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三焦辨證의 원류를 劉完素에게서 찾으며 접근한 羅<sup>10)</sup>와 朱<sup>11)</sup>는 三焦辨證의 病位구분, 각각의 治法제시와 같은 의의를 밝혔으나 三焦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濕熱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三焦辨證의 원류를 張仲景, 劉完素, 葉天士에서 각각 찾은 朱<sup>12)</sup>는 三焦辨證의 綱領이라는 면에서 세 의가를 중심으로 고찰을 하였는데 溫熱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上焦, 中焦, 下焦라는 용어가 언급되거나 上中下로 구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溫熱病과 三焦辨證의 개연성을 밝힌 부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劉完素 그 외에 三焦辨證에 대하여 연구한 張<sup>13)</sup>, 王<sup>14)</sup>, 趙<sup>15)</sup> 등의 논술을 보더라도 吳鞠通 學說의 객관적인 정리이거나 濕熱病에 국한된 논지에 그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濕熱病類에만 국한되지 않은 溫熱病에 대한 三焦辨證學說의 原流를 劉完素에게서 찾는 방법은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표면적인 부분의 비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각자의 學說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劉完素의 저서와 『溫病條辨』을 연구하며 溫熱病類와 관련된 學說 및 辨證에 대한 단서를 파악한 후, 三焦辨證의 의미, 특히 왜 溫熱病을 三焦 중심으로 辨證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이 과정에서 두 학자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黃帝內經』, 『傷寒論』을 근거로 활용

할 것이다.<sup>16)</sup> 그리고 吳鞠通의 溫熱病 인식 및 三焦辨證에 따른 病證 기술내용을 귀납하여서 다시금 앞서 고찰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국 溫熱病을 三焦辨證과 衛氣營血辨證으로 접근하는 것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고찰한 후에 앞으로 溫熱病에 대한 辨證 연구의 방향에 대해 조금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溫病條辨』에서 三焦의 의미

#### 1) 辨證 總綱으로서의 三焦

##### (1) 劉完素의 三焦說과 火熱病機

吳鞠通이 언급한 三焦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류를 탐색해본 후, 吳鞠通이 三焦를 어떻게 규정짓고 『溫病條辨』을 서술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원류 탐색으로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이 劉完素의 火熱病機에 관한 부분이다. 劉完素에 대한 연구에 앞서 吳鞠通의 三焦辨證에 관한 연원을 劉完素에게서 찾는 방법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吳鞠通은 溫病은 위에서 아래로 전변됨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河間의 三焦定論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17)</sup> 이 문장만

9) 李劉坤. 吳鞠通溫病三焦辨證的特點和意義. 浙江中醫雜誌. 1999. 10. pp.415-417.  
 10) 羅素華. 吳鞠通濕熱病辨治規律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9. pp.24-28.  
 11) 朱平. 葉天士論溫病三焦辨治淺探. 湖北中醫學院學報. 2001. 3(1). pp.11-12.  
 12) 朱云, 史恒軍. 三焦辨證源流淺探.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3). pp.8-10.  
 13) 張宏勇, 張勤, 孫守才. 吳鞠通論治濕溫的特色. 山西中醫學院學報. 2009. 10(1). pp.8-9  
 14) 王紫陽. 淺評吳瑭的學術思想. 江蘇中醫. 1995. 16(11). pp.36-37.  
 15) 趙文蘭. 趙紹琴教授治療濕溫病的經驗選介. 中國醫刊. 1999. 34(9). pp.49-50.

16) 劉完素는 『黃帝內經』의 病機19條를 다룬 것은 물론 『黃帝內經』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중요시 하였다. 이는 그의 저서인 『素問玄機原病式』, 『黃帝素問宣明論方』, 『素問病機氣宜保命集』, 『素問要旨論』 등의 書名만 보더라도 그가 『黃帝內經』을 중요시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傷寒直格』, 『傷寒標本法類萃』, 『傷寒醫鑑』 등의 저서를 보더라도 『傷寒論』에 대한 그의 연구 실적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다. 吳鞠通 또한 『溫病條辨』의 首卷에서 『黃帝內經』의 經文을 두루 인용하여 강령으로 삼았고, 그의 저서가 『傷寒論』을 모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傷寒에 대해서는 仲景의 法을 높이 샀고 책의 구성 또한 『傷寒論』의 형식을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劉完素와 吳鞠通의 醫論을 비교하며 볼 때에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교차점으로서의 근거로 삼아 논지를 전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7)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鼻通於肺, 始手太陰, 太陰, 金也, 溫者, 火之氣, 風者, 火之母, 火未有不克金者, 故病始於此, 必從河間三焦定論.”

으로도 吳鞠通의 三焦辨證 연구에 劉完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또한 그는 『溫病條辨』의 凡例를 통하여 溫病에 관한 論술이 歷代 醫家 중에 오직 葉天士만이 가장 공평하면서 정밀하다고 하였다.<sup>18)</sup> 그는 그러한 葉天士의 이론을 이어 받았으며 三焦辨證 이론에 있어서도 葉天士의 三焦辨證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였다.<sup>19)</sup>

吳鞠通이 계승한 葉天士의 論술을 살펴보면 河間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학설을 따른 부분이 여러 군데에 보이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 중에 三焦와 관련한 설명이 나타난 부분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뉘어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分消三焦’에 관한 論술이고, 다른 하나는 傷寒의 六經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三焦’에 관한 論술이다. ‘分消三焦’에 관한 論술은

吳 平昔濕痰阻氣爲喘，茲因過食停滯，陰臟之陽不運，陽腑之氣不通，二便不爽，跗腫腹滿。診脈沉弦，猶是水寒痰滯，阻遏氣分，上下皆不通調，當從三焦分治，頃見案頭一方，用菟絲子升少陰，吳茱萸泄厥陰，不知作何解釋，不敢附和，仍用河間分消定議。濕壅三焦肺氣不降。『臨証指南醫案腫脹』<sup>20)</sup>

濕壅三焦，則用河間分消。『臨証指南醫案便閉』<sup>21)</sup>

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출처가 河間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濕이 三焦에 鬱滯되어 宣通되지 않을 때 三焦에 따라 각각 나누어 해소하는 治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吳鞠通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五六. 吸受穢濕，三焦分布，熱蒸頭脹，身痛嘔逆，小便不通，神識昏迷，舌白，渴不多飲，先宜芳香通神利竅，安宮牛黃丸，繼用淡滲分消濁濕，茯苓皮湯。<sup>22)</sup>

五八. 三焦濕鬱，升降失司，脘連腹脹，大便不爽，一加減正氣散主之。<sup>23)</sup>

上條以下焦爲邪之出路，故用重。此條以上焦爲邪之出路，故用輕。以下三焦均受者，則用分消。<sup>24)</sup>

이 또한 三焦辨證의 의미를 띠고 있지만, 관련 기술 내용이 무엇보다 中焦篇의 濕溫門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대 의가들이 濕熱病을 설명하는 의미로서의 三焦辨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傷寒의 六經과 대비되는 ‘三焦’ 論술은

翁 (二二) 夏季溫熱上受，首先入肺，河間主三焦極是。今世醫者，初用非發散，卽消食，散則耗氣，消則劫胃，究竟熱蘊未除，而胃汁與肺氣皆索，故不飢不食不便，上脘似格似阻，酸濁之氣，皆是熱化，病延多日，苦寒難以驟進，先擬開提上焦氣分。『臨証指南醫案不食』<sup>25)</sup>

褚 溫邪中自口鼻，始而入肺，爲咳喘，繼傳膈中則噎血，乃心營肺衛受邪，然邪在上焦，壅遏阻氣，必聚爲熱，痰臭噎渴，是欲內閉。惜不以河間三焦立法，或謂傷寒主六經，或謂肺癰專泄氣血，致熱無出路，胸突腹大，危期至速矣。『臨証指南醫案溫熱』<sup>26)</sup>

楊 (二八) 暑熱必挾濕，吸氣而受，先傷於上，故仲景傷寒，先分六經，河間溫熱，須究三焦。『臨証指南醫案暑』<sup>27)</sup>

後賢劉河間創議，迥出諸家，謂溫熱時邪，當分三焦投藥，以苦辛寒爲主。若拘六經分症，仍是傷寒治法，致誤多矣。蓋傷寒外受之寒，必先從汗解，辛溫散邪是已，口鼻吸入之寒，卽爲中寒陰病，治當溫裡，分三陰見症施治。若夫暑病，專方甚少，皆因前人略於暑詳於寒耳。『臨証指南醫案夏熱』<sup>28)</sup>

22)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6.

23)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7.

2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6.

25)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183.

26)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216.

27)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229.

18)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1. “奈溫病一證，諸賢悉未能透過此關，多所彌縫補救，皆未得其本真，……惟葉天士持論平和，立法精細，”

19) 정창현. 은병조변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특징. 대한한의학회지. 2003. 16(1). p.81.

20)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148.

21)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193.

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출처가 역시 河間의 것임을 밝혔으며 溫熱 또는 暑熱이 上焦로 먼저 들어오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河間의 三焦와 관련한 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吳鞠通은

溫病由口鼻而入，自上而下，鼻通於肺，始手太陰。太陰，金也，溫者，火之氣，風者，火之母，火未有不克金者，故病始於此，必從河間三焦定論。<sup>28)</sup>

이라고 기술하였다. 吳鞠通이 溫熱病에 대한 三焦辨證을 언급한 문맥은 葉天士가 傷寒의 六經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든 ‘河間의 三焦說’과 매우 유사하다. 때문에 溫熱病類에 대한 劉完素의 논의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三焦에 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吳鞠通이 인식한 三焦를 규명하는 데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劉完素는 『黃帝內經』의 ‘病機19條’ 중에서 ‘火熱病證’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病機를 상세히 분석하였다.<sup>30)</sup>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의 틀로써 제시한 표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熱氣가 佛鬱되어 玄府가 막히면 氣液, 血脈, 榮衛, 精神이 升降, 出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31)</sup> 이러한 논설의 근거로 인용한 『黃帝內經』의 원문을 살펴보면, 升降, 出入하지 못하면 生長化收藏, 즉 變化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變化는 器<sup>32)</sup>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sup>33)</sup> 熱氣가 佛鬱되어 升降

出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火熱病證의 핵심적인 病機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熱病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

病有暴熱者病在心肺，有積熱者病在腎肝。暴熱者 宜局方中雄黃解毒丸。積熱者 宜局方中妙香丸。暴熱上喘者病在肺，謂之高端，木香金鈴子散。……有虛熱不能食而熱者，脾虛也，宜以厚朴白朮陳皮之類治之。有實熱能食而熱者，胃實也，宜以梔子黃芩湯，或三黃丸之類治之，蔚金柴胡之類亦是也。……治久熱者 局方中妙香丸。<sup>34)</sup>

라고 기술하였다. 心肺의 熱病은 갑작스러운 熱病<sup>35)</sup>으로 보았고, 肝腎의 熱病은 쌓이고 오래된 熱病으로 보았으며, 脾胃의 熱病은 能食, 不能食의 여부를 판단하여 胃熱은 實熱, 脾熱은 虛熱로 구분하였다. 이는 佛鬱된 熱氣의 所在와도 관계있는 서술이며, 전통적으로 臟腑를 上中下로 구분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sup>36)</sup> 또한 熱氣 佛鬱로 인하여 나타나는 熱病을 증상이 나타나는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劉完素의 火熱病機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질환으로는 ‘消渴’이 있다. 그는 다양한 원인의 消渴에 대하여 병이 생기는 경우는 다를지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燥熱이라고 하였다.<sup>37)</sup> 燥熱이

28)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p.482-483.

29) 吳鞠通 著, 丁韋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천시. 집문당. 2004. p.545.

30)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p.218.

31)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69. “若目無所見，耳無所聞，鼻不聞臭，舌不知味，筋痿骨痺，齒腐，毛髮墮落，皮膚不仁，腸不能滲泄者，悉由熱氣佛鬱，玄府閉密，而致氣液血脈，榮衛精神不能升降出入故也。”

32) 器는 生化의 터전[宇]으로 보았는데 좀 더 국한시켜 본다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인체라는 場으로 이해할 수 있다.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44. “器者，生化之宇，器散則分之，生化息矣”)

33)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41. “故經曰，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是知出入升降，無器不有”

34)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4, 445, 448.

35) ‘暴熱’에 처방한 局方의 雄黃解毒丸의 주치 효능은 “解毒，治纏喉風及急喉風，卒然倒仆，失音不語，或牙關緊急，不省人事”라고 하였고(太醫局 原編著，柴金苗，張東波 主編. 太平惠民和劑局方精要. 貴陽. 貴州科學技術出版社. 2007. p.249), ‘暴熱上喘’에 처방한 木香金鈴子散의 주치 효능은 “治暴熱，心肺上喘不已”라고 하였다.(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5.)

36)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一中社. 1988. pp.363-364. “論曰夫上焦如霧，……主手少陽心肺之病。……論曰中焦如瀾，……主脾胃之病。……論曰下焦如瀆，……主肝腎之病候也。” 三焦로 구분하여 上中下의 臟腑의 病을 살피는 것은 『千金要方』에서 유래한다.

3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41. “試取內經凡言渴者，盡明之矣，有言心肺氣厥而渴者，有言肺痺而渴者，有言脾熱而渴者，有言腎熱而渴者，有言胃與大腸熱結而渴者，有言脾痺而渴者，有言小腸痺熱而渴者，有因病瘧而渴者，有因肥甘石藥而渴者，有因醉飽入房而渴者，有因遠行勞倦遇大熱而渴者，有因傷害胃乾而渴者，有因腎熱而渴者，有因病風而渴者，雖五臟之部分不同，而病之所遇各異，其歸燥熱一也。”

매우 심하여서 三焦나 腸胃의 腠理에 拂鬱되고 結滯되는 것이 消渴의 대략적인 기전임을 밝히면서,<sup>38)</sup> 이에 대한 근거로 그의 玄府說을 인용하였다.<sup>39)</sup>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消渴에서 燥熱에 대한 논술이나 火熱病의 熱氣拂鬱이 밀접한 내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消渴은 三焦가 병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三消 이론을 三焦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sup>40)</sup>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上消者上焦受病，又謂之膈消病也。多飲水而少食，大便如常或小便清利，知其燥在上焦也，治宜流氣潤燥。……法曰上燥而渴，辛甘而祛，用潤肺，故可用蜜煎生薑湯，大器頓之，時時呷之。法云心肺之病莫厭頻而少飲。內經云補上治宜以緩，又曰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則肺氣下流，故氣下火降而燥衰矣，其渴乃止。<sup>41)</sup>

中消者胃也，渴而飲食多，小便黃。經曰熱能消穀，知熱在中。法云宜下之，至不欲飲食則愈。……又經曰二陽結爲消。王注曰二陽結於胃及大腸俱熱也，腸胃藏熱則善消水穀，可甘辛降火之劑。<sup>42)</sup>

腎消者病在下焦 初發爲膏淋，下如膏油之狀，至病成而面色黧黑，形瘦而耳焦，小便濁而有脂。治法宜養血以肅清，分其清濁而自愈也。<sup>43)</sup>

앞서 消渴은 三焦에서 병을 받았다고 언급한 부분에 六府로서의 三焦 개념이 포함되었는지 모른다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心肺, 胃, 腎이라는 臟腑의 언급 과정에서 三焦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sup>44)</sup> 또한 拂鬱된 燥熱의 所在에 따라 消渴의 유형과 치법을 제시하면서 上消는 潤燥하여 肺氣를 流行하도록 하였고 中消는 下法을 썼으며 腎消는 養血하여 清氣를 肅降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消渴의 일반적인 치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故治消渴者，補腎水陰寒之虛，而瀉心火陽熱之實，除腸胃燥熱之甚，濟人身津液之衰，使道路散而不結，津液生而不枯，氣血利而不澀，則病日已矣。<sup>45)</sup>

라고 하였다. 上焦에 해당하는 心火를 瀉하고 下焦에 해당하는 腎水를 補하며 中焦에 해당하는 腸胃의 燥熱을 없애서 津液을 보존하고 熱氣가 鬱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消渴이라는 질병에 국한된 설명이지만 燥熱로 인한 질병을 上中下로 구분하여 각각의 치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몸의 津液을 구제하고 升降出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熱病을 인체에서 받는 데에 있어서 劉完素의 學說에 특이적인 부분이 있다. 그는 傷寒에 대해 논의 하면서 傷寒이 足經으로만 傳變되고 手經으로 傳變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sup>46)</sup> 이에 寒邪에 傷하여도 熱病이 된다는 논지를 바탕으로<sup>47)</sup>

又曰傷於風者上先受之，傷於濕者下先受之，注云陽氣炎上，故受風。陰氣潤下，故受濕，蓋同氣相合耳。故風熱火爲陽，寒濕燥爲陰。<sup>48)</sup>

라고 기술하였다. 『素問·太陰陽明論』의 “傷於風者，

38)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40. “蓋燥熱太甚，而三焦腸胃之腠理，拂鬱結滯，緻密壅塞，而水液不能滲泄浸潤於外，榮養百骸，故腸胃之外燥熱太甚，雖復多飲於中，終不能浸潤於外，故渴不止，小便多出者，如其多飲，不能滲泄於腸胃之外，故數澀也。”

39)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 640-641. “故余著有原病式曰，皮膚之汗孔者，謂泄汗之孔竅也，一名氣門者，謂泄氣之門戶也，一名腠理者，謂氣液之隧道紋理也，一名鬼門者，謂幽冥之門也，一名玄府者，謂玄微之府也，然玄府者，無物不有，人之臟腑皮毛，肌肉筋膜，骨髓爪牙，至於萬物，悉皆有之，乃出入升降，道路門戶也，故經曰，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是知出入升降，無器不有，”

40)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論曰消渴之疾三焦受病也，有上消中消腎消.”

41)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42)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43)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44) 上消와 腎消는 병의 소재를 각기 上焦, 下焦라고 하였지만 中消에서는 胃라고 지목하여 얘기하고 있다. 이는 吳鞠通의 三焦辨證에서 溫熱病이 中焦에서 나타날 때에 거의 陽明溫病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45)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39.

46)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1. “故傷寒傳足經，不傳手經。未詳耳.”

4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1. “人之傷於寒則爲病熱”

48)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1.

上先受之, 傷於濕者, 下先受之.”<sup>49)</sup>를 언급하면서 風, 熱, 火가 陽에 속한다고 하여 熱病을 위에서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 消渴을 언급할 때에

上消者上焦受病, …… 中消者胃也, …… 腎消者病在下焦.<sup>50)</sup>

라고 하면서 上消는 上焦에서 받는다고 하면서도 中消와 下消는 단지 病이 각각 胃와 下焦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上部에서 熱病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陽勝則外熱’이라는 經文을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又曰陽勝則外熱, 陰勝則內寒, 此言併者也, 夫表裡陰陽之分, 受其邪熱之所在, 其沖和正陽之衛氣, 又爲邪熱相併, 而爲病之所正氣轉實而不虛, 故經言勝也.<sup>51)</sup>

라고 기술하여 ‘陽’과 ‘外’는 邪熱을 받는 부위로 보았고 陽部位에서 正陽의 衛氣와 邪熱이 서로 어우러지고 實해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內經』의 조문을 찾아보면

帝曰, 陽盛生外熱, 奈何. 岐伯曰, 上焦不流通,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黃帝內經素問·調經論』<sup>52)</sup>

이라고 하였는데, 陽이 盛하여 體外에 熱이 나는 것을 설명하며 上焦에서 氣가 소통되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로 말미암아 보더라도 『內經』에서도 上部 또는 上焦가 熱病이 시작할 때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下焦 肝腎의 熱病을 積熱, 久熱이라고 표현한 발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熱病이 上部에서 下部로 진행되는 데에 대한 논지로써는 미흡하므로 뒤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劉完素의 火熱病機에 대한 학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熱氣가 佛鬱되어 玄府가 閉塞되면 인체의 升降出入이 실조되어 變化 및 生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佛鬱된 熱氣의 所在에 따라 熱病의 유형이 다르고, 上, 中, 下에 해당하는 臟腑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熱病의 治法을 上, 中, 下에 따라 달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津液 구제와 원활한 升降出入이 治療의 목표가 된다.

넷째, 熱病의 시작은 인체의 上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火熱病機의 學說에서 ‘三焦’의 의미는 病의 중심이 되는 臟腑의 구분, 熱病의 유형, 부위에 따른 적절한 치법 적용, 熱病의 발단 등과 같이 질병을 변별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綱領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2) 『溫病條辨』의 辨證 總綱

吳鞠通은 凡例를 통하여 上焦篇, 中焦篇, 下焦篇에 각기 上焦, 中焦, 下焦에 속하는 溫病을 기술함을 밝혔다.<sup>53)</sup> 또한 각 편제 내의 기술방식은 『傷寒論』의 방식을 따름을 밝혔고,<sup>54)</sup> 『傷寒論』에서 조문의 앞머리에 ‘太陽病’, ‘陽明病’ 등 三陰三陽病을 구분하는 말을 언급하는 형식을 본 따서 『溫病條辨』에서도 주로 ‘太陰溫病’, ‘陽明溫病’ 등과 같이 溫病을 구분하는 冒頭語로 조문을 시작하였다. 이 때 언급한 太陰, 陽明, 少陰, 厥陰 등은 傷寒의 六經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실제 臟腑의 지칭이다. 上焦篇에서 ‘太陰溫病’, ‘太陰暑溫’과 관련된 조문의 주석에서는 肺를 언급하였고,

49) 『素問太陰陽明論』에는 이 구절 앞에 이미 陽病은 上行이 극에 달하여 내려간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張志聰의 주석을 살펴보면 邪氣은 人體 氣를 따라 옮겨간다고 하며 陽病이 위에 있는 것은 오래되면 氣를 따라 下行한다고 하였다. (張志聰 編註, 李元起 懸吐.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51.)

50)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51)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81.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9.

53) 吳鞠通 著, 丁軫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천시. 집문당. 2004. p.531. “一卷爲上焦篇, 凡一切溫病之屬上焦者系之; 二卷爲中焦篇, 凡溫病之屬中焦者系之; 三卷爲下焦篇, 凡溫病之屬下焦者系之”

54) 吳鞠通 著, 丁軫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천시. 집문당. 2004. p.531. “是書仿仲景傷寒論作法, 文尙簡要, 便於記誦.”

‘邪入心包’, ‘手厥陰暑濕’ 등의 서술을 통해 心包를 언급하였다. 中焦篇에서는 ‘陽明溫病’, ‘陽明暑濕’ 등과 관련된 조문의 주석에서는 胃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足太陰寒濕’과 같은 표현으로 脾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下焦篇에서는 ‘少陰’, ‘厥陰’을 각각 腎, 肝으로 보았다. 또한 溫病이 口鼻를 통해 邪氣를 받으며 肺의 邪氣가 逆傳하면 心包病이 되고, 上焦病이 낫지 않으면 中焦인 脾와 胃로 들어가고, 中焦病이 낫지 않으면 下焦인 肝과 腎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sup>55)</sup> 이와 같이 上焦, 中焦, 下焦의 病은 각각 肺와 心包, 脾胃, 肝腎의 病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sup>56)</sup>

또한 그는 溫病은 口鼻로 침입하여 上部에서 下部로 내려감을 설명하였다.<sup>57)</sup> 葉天士도 溫病은 上部에서 받으므로 河間이 溫熱을 三焦라는 종적인 체계로 헤아렸다고 언급하였다.<sup>58)</sup> 그리고 吳鞠通은 上部에서 溫熱邪를 받는 까닭을 手太陰肺의 金을 溫熱邪의 火가 克하여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59)</sup> 그리고 陽明胃土는 모든 병이 귀의하는 곳이고,<sup>60)</sup> 溫病이 침입하는 口鼻 중에 입은 胃에 통하기도 하며,<sup>61)</sup> 陽明은 두 陽이 습하는 곳인데 溫邪의 熱氣와 陽明의 熱氣가 相搏한다고 하여<sup>62)</sup> 陽明에서의 溫病 發病機轉을 설명

하였다. 또한 土가 實하면 水가 虛해지므로 少陰腎에 영향을 미치며, 水가 虛하면 木이 강해져 厥陰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63)</sup> 그리고 이것이 溫病의 病邪가 上部에서 下部로 파급되는 경로라고 서술하였다.<sup>64)</sup> 이렇게 上部에서 下部로 전변하는 과정을 臟腑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三焦의 의미는 臟腑를 포괄하여 전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總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臟腑의 生理病理적 機能場으로서의 개념으로 ‘三焦’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溫熱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臟腑를 上, 中, 下의 縱的인 단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三焦辨證은 결국 臟腑辨證의 연장선이 될 뿐이다. 劉完素가 火熱病機를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三焦라고 언급하였고 그 學說을 타당하다고 여긴 吳鞠通이 三焦의 어떠한 부분에 주목했는지를 밝혀야만 臟腑辨證을 왜 三焦 중심의 辨證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하여 타당성이 생긴다. 때문에 臟腑 중의 三焦에서 어떤 역할을 중점으로 보았는지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 2) 臟腑로서의 三焦

### (1) 濕病에서 주목한 三焦 역할

吳鞠通이 『溫病條辨』을 上, 中, 下焦의 편제로 기술하면서 辨證의 綱領으로 삼았지만, 臟腑 중의 하나로서의 三焦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념과 다른 학설을 가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六腑 중의 하나인 三焦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한 조문이 보인다. 寒濕을 다룬 부분에서는

其或肝氣不熱, 則不用秦皮, 仍用五苓中之桂枝以和肝, 通利三焦而行太陽之陽氣, 故五苓散亦主之.<sup>65)</sup>

5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肺病逆傳, 則爲心包; 上焦病不治, 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 即傳下焦, 肝與腎也.”  
56) 조성규, 吳鞠通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p.58. 조는 三焦辨證에서 六經이 臟腑 經絡의 차이를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太陰, 厥陰, 陽明, 少陰 등의 六經의 명칭을 빌려 쓴 冒頭語가 구체적인 臟腑 經絡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57)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58)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183, 229. “夏季溫熱上受, 首先入肺, 河間主三焦極是.”, “暑熱必挾濕, 吸氣而受, 先傷於上. 故仲景傷寒, 先分六經, 河間溫熱, 須究三焦.”  
5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太陰, 金也, 溫者, 火之氣, 風者, 火之母, 火未有不克金者, 故病始於此”  
60)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陽明如市, 胃爲十二經之海, 土者萬物之所歸也, 諸病未由不遇此者”  
61)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溫病由口鼻而入, 鼻氣通於肺, 口氣通於胃”

62)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6. “陽明者, 兩陽合明也. 溫邪之熱, 與陽明之熱相搏”  
63)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41. “土實則水虛, 浸假而累及少陰矣, 耳聾不臥等證是也, 水虛則木強, 浸假而累及厥陰矣, 目閉癢厥等證是也.”  
6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41. “此由上及下, 由陽入陰之道路, 學者不可不知.”

椒附白通湯，齊通三焦之陽，而急驅濁陰也。<sup>65)</sup>  
三焦通利，濕不得停，焉能聚而為痛。<sup>67)</sup>

라고 언급하였다. 주로 ‘通利三焦’라는 陽氣 宣通과 관련된 治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原氣之別使’이며 ‘主行氣’하는 六腑로서 三焦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이다. 또한 濕溫을 다룬 부분에서는

五六. 吸受穢濕，三焦分布，熱蒸頭脹，身痛嘔逆，小便不通，神識昏迷，舌白，渴不多飲，先宜芳香通神利竅，安宮牛黃丸，繼用淡滲分消濁濕，茯苓皮湯。<sup>68)</sup>

五八. 三焦濕鬱，升降失司，脘連腹脹，大便不爽，一加減正氣散主之。<sup>69)</sup>

라고 하여, 濕이 三焦에 울체되고 升降이 실조되는 病機의 증상들을 조문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水穀之道路’로서 三焦의 특징이 반영되어있다. 또 濕溫門에서 말하기를,

上條以下焦為邪之出路，故用重。此條以上焦為邪之出路，故用輕。以下三焦均受者，則用分消。<sup>70)</sup>

라고 하여 邪氣의 出路가 上焦에 있으면 약을 가볍게 쓰도록 했고 下焦에 있으면 무겁게 쓰도록 했으며 三焦 전체에 邪氣가 있으면 上下로 分消하도록 治法을 제시하였다.<sup>71)</sup> 이 부분은 三焦에 따라 治法을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辨證施治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六腑인 三焦의 기능을 중심으로 上中下로 辨證했다는 점에서 앞서 辨證의 總綱이 되는 ‘三焦’의 개념보다는 좁은

의미를 지닌다. 즉 上中下에 해당하는 臟腑 중심이 아니라 六腑인 三焦의 기능이 실조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을 기술하며 病所로서 三焦의 개념을 부각시킨 것이다. 때문에 기존 의가들이 濕熱病의 辨證에 三焦辨證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三焦를 病所로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病所로서 인식한 三焦의 개념으로는 臟腑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辨證 總綱에 개연성을 붙여넣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濕溫病은 中焦病이 가장 많다고 하며<sup>72)</sup> 中焦篇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寒濕<sup>73)</sup>의 경우에는 中焦에 直中하는 경우도 기술하여서<sup>74)</sup> 모든 濕病이 上焦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辨證總綱과 어긋나는 부분도 보이므로 더더욱 三焦라는 개념의 입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濕熱病에서 주목한 三焦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

## (2) 濕熱病에서 주목한 三焦 역할

앞서 辨證 總綱으로서의 三焦를 얘기하면서 『溫病條辨』이 臟腑로써 부위를 나누어 기술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三部位’가 아닌 ‘三焦’로써 변증을 했다는 점에서 三焦가 臟腑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함을 가정해볼 수 있다. 즉 陰陽生化的 主體인 五藏의 機能發顯을 統制, 調節, 協調하여 전체적으로 總括하는 개념<sup>75)</sup>으로서의 ‘三焦’의 의미를 추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추론을 위해서는 다시 劉完素의 學說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劉完素의 學說에 대한 연구가 표면적인 내용정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6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07.

66)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08.

67)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09.

68)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6.

6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7.

70)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6.

71) 이 부분은 吳鞠通이 葉天士의 治法을 뽑아서 개괄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72)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69. “濕溫較諸溫, 病勢雖緩而實重, 上焦最少, 病勢不甚顯張, 中焦病最多, 詳見中焦篇, 以濕為陰邪故也, 當於中焦求之.”

73) 濕溫을 다룬 『溫病條辨』임에도 불구하고 寒濕에 대하여 열거한 이유는 寒濕이 濕溫과 긴밀하게 짝을 이루므로 濕溫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밝혔다.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06. “此書以溫病名, 并列寒濕者, 以濕溫緊與寒濕相對, 言寒濕而濕溫更易明析.”)

7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12. “中陽本虛, 內停寒濕, 又為蒸騰穢濁之氣所干, 由口鼻而直行中道, 以致腹中陽氣受逼, 所以相爭而為絞痛”

75) 김완희, 김광중. 三焦에 대한 생리학적 고찰. 동서의학. 1985. 10(3). p.75

에는 그 學說로부터 三焦의 구체적인 의미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劉完素가 熱病의 유형을 臟腑의 縱的 구분으로 서술한 부분에서 ‘三焦’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乃腸胃乾涸，膈中氣不下，……故膈中者臣使之官，名三焦相火，下合右腎爲氣海也。<sup>76)</sup>

라고 하였는데, 腸胃가 말라있을 때에 膈中の 氣가 하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때 膈中の 氣를 三焦相火로 명명할 수 있으며 三焦相火가 내려가서 右腎과 합하여 氣海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劉完素가 『仙經西山記』의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又仙經西山記言平人四時嘗有喘，謂三焦相火無不足，八節不得吹，謂腎臟陰難得實，然則豈可不明陰陽虛實，但欲養於陽熱耶。<sup>77)</sup>

즉 三焦相火는 부족함이 없고 腎이 陰을 갈무리하는 것은 實해지기 어렵다고 하여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說’과 유사한 논지를 편 것이다. 또한,

經所謂諸寒而熱者取之陰，諸熱而寒者取之陽，此所謂求其屬也。王注曰益火之源以消陰翳，用水之主以制陽光，此之謂也。……有病久憔悴發熱盜汗，謂五臟齊損此熱勞骨蒸病也，瘦弱虛煩腸澀下血皆蒸勞也，宜養血益陰，熱能自退。<sup>78)</sup>

라고 하였는데 五臟이 모두 損傷되어 勞熱, 骨蒸熱이 나타날 때에는 血을 기르고 陰을 보익하여 치료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素問至真要大論』의 “諸寒之而熱者，取之陰，諸熱之而寒者，取之陽，所謂求其屬也。”라는 구절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熱病에 대비적인 의미로서 腎陰을 중요시하였고 三焦相火는 有餘하니 마땅히 下降하여 腎과 合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을 더 찾아 보자면 消渴을 설명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開腠理致津液通則肺氣下流，故氣下火降而燥衰矣。<sup>79)</sup>  
法曰盛陽乘陰，故精泄也，黃柏降火，蛤粉鹹而補腎陰也。<sup>80)</sup>

앞서 消渴은 三焦에서 병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腠理가 열리고 津液이 통하게 되면 肺氣가 하강하니 氣가 내려가면 火도 내려간다고 하였고, 陽이 盛하면 陰을 업신여기므로 精泄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火를 내리고 腎陰을 보하는 것으로 治法을 제시하였다. 消渴의 일반적인 처방으로 제시한 “補腎水陰寒之虛，而瀉心火陽熱之實，除腸胃燥熱之甚”<sup>81)</sup> 역시 비슷한 맥락의 기술이다. 여기서 보더라도 上部에 있는 火의 下降과 腎水의 補益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劉完素의 火熱病機에 있어서 腎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少陽屬腎’이라는 『內經』의 구문과 같이 腎과 三焦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劉完素의 火熱病機에서 주목하는 三焦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火의 下降에 있어서 정상적인 肺氣의 역할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 『內經』에서

少陽屬腎，腎上連肺，故將兩藏。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 三焦가 腎에 속하는데 腎이 위로는 肺에 잇닿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도랑 역할을 하는 것이 三焦라고 하였으므로, 劉完素의 火熱病機에서 언급하는 肺, 腎과 관련된 부분으로써의 三焦에 주목하여 “中瀆之府，水道出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內經』에서

76)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7.

7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46.

78)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5.

79)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9.

80)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81.

81)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39.

腎者, 至陰也, 至陰者, 盛水也. 肺者, 太陰也, 少陰者, 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 …… 腎者, 北藏也, 地氣上者屬於腎, 而生水液也.<sup>82)</sup>

라고 하였다. 肺와 腎은 모두 水를 쌓는다고 하면서 腎이 本이고 肺가 末이라고 하였는데, 腎은 陰藏이므로 地氣가 上升하는 것이 腎에 속하므로 水液을 만들어 낸다고 한 맥락에서 볼 때, 本이 되는 腎의 역할이 上升하는 것이라면 末이 되는 肺의 역할은 上升해서 펼친 것을 下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水를 生하여 升降을 시키는 주체적인 臟이 肺와 腎이고, 그 升降의 터전이며 水의 도리가 三焦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水液의 升降이라 일컫고 있지만 여기에 相火의 개념이 없이는 上升도 없고 그로 인한 下降도 없다.<sup>83)</sup> 그렇지만 相火가 치성한 것 또한 升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劉完素는 火에 속하는 病機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諸熱贅癥, 暴瘡冒昧, 躁擾狂越, 馬驚駭, 臍腫疼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及嘔瘡瘍喉痺, 耳鳴及聾, 嘔湧, 溢食不下, 目昧不明, 暴注瀉痢, 暴病暴死, 皆屬於火. 少陽相火之熱, 乃心包絡三焦之氣也.

나열한 증상들의 病機가 火에 속하며 그 火라는 것은 少陽相火의 熱이고 心包三焦의 氣라고 기술하였는데,<sup>84)</sup> 앞의 논지와 연결시켜보면 溫熱病의 병리적 상황에서 三焦相火를 마땅히 下降시켜 腎과 合해야 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 합당한 얘기이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에서 도출할 수 있는 劉完素의 三焦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결국 정상적인 ‘水升火降’의 의미로 볼 수 있겠다. 三焦의 정상적인 水液 升降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上部의 火가 熾盛한 것이 중점인지, 下部의 水가 부족한 것이 중점인지, 아니면 中部의 腸胃가 말라 升降의 기능실조가 된 것이 중점인지를 관찰하여

적합한 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앞서 三消의 치법을 각각 潤燥하여 肺氣流行, 下法, 養血로 설명한 것이 매우 합당하며, 그의 이론적 측면이 실제 질환에 대해서도 일맥상통하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溫病條辨』에도 이러한 맥락의 논술이 보인다. 비록 臟腑를 上, 中, 下로 구분하여 辨證 總綱으로 삼고 그에 따른 증상과 치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氣機의 升降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三. 太陰之爲病, 脈不緩不緊而動數, 或兩寸獨大, 尺膚熱, 頭痛, 微惡風寒, 身熱, 自汗, 口渴, 或不渴而咳, 午後熱甚者, 名曰溫病.<sup>85)</sup>

尺膚熱甚, 火燥精也.<sup>86)</sup>

腎精告竭, 陰液不得上潮, 故口中乾.<sup>87)</sup>

上焦篇의 三條에서 溫病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기술하였는데, ‘尺膚熱’ 증상에 대해서 火邪가 精을 消燬하다고 언급하여 上焦에 속하는 太陰溫病에도 腎精이 溫熱邪의 영향 하에 있음을 기술하였고, ‘口中乾’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腎精이 고갈되면 陰液이 上焦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蓋肺爲清虛之臟, 微苦則降, 辛涼則平.<sup>88)</sup>

木火太過, 其變最速, 但用白虎燥金之品, 清肅上焦, 恐不勝任, 故加元參啓腎經之氣, 上交於肺, 庶水天一氣, 上下循環, 不致泉源暴絕也.<sup>89)</sup>

또한 太陰溫病의 輕證 치료에 肺氣를 하강시키도록 하였고, 太陰溫病에서 氣分熱에 血分熱까지 더해지면

8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6.

86)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7.

87)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8.

88)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9.

8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54.

8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3.

83) 박은 下焦에서 相火가 발생할 때 생기는 陰厥로 인하여 氣血이 하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찬국. 三焦와 相火. 대한한의학회지. 1988. 2. p.17.)

84)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61.

上焦의 淸肅과 함께 腎經의 氣를 肺와 교류케 하여 상하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人身之少陰素虛，不能上濟少陽，少陽升騰莫制。<sup>90)</sup>

劉完素가 三焦相火를 언급한 부분과 같이 少陰이 虛하면 少陽과 교제하지 못하여 相火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언급도 있다.

蓋胃之爲腑，體陽而用陰，若在無病時，本繫自然下降，今爲邪氣蟠踞於中，阻其下降之氣，胃雖有自欲下降而不能，非藥力助之不可，故承氣湯通胃結，救胃陰，仍繫承胃腑本來下降之氣。<sup>91)</sup>

胃氣大實，逼迫肺氣不得下降。<sup>92)</sup>

그리고 胃는 본래 氣가 하강하는 腑인데 邪氣가 가로막아 下降하지 못하면 承氣法으로 結實을 通下하고 胃의 陰液을 구원하도록 하였으며, 胃氣가 지나치게 실하면 肺氣를 꺾박하여 下降하지 못하게 한다고도 하였다.

心中煩，陽邪挾心陽獨亢於上，心體之陰，無容留之地，故煩雜無奈<sup>93)</sup>

또 下焦篇의 少陰溫病에서 壯火가 치성하여 心煩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陽邪가 心의 陽氣와 함께 위에서 홀로 항성하다고 표현하여 少陰腎의 陰精이 虛하여 陽氣를 받아들이지 못해 상부에서 下降하지 못하고 亢盛한 心陽의 病機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에서 氣機의 升降, 특히 水의 上升과 火의 下降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治法에도 응용하였다. 이는 劉完素의 火熱病機에서 볼 수 있었던 ‘水升火降’의 맥락이 『溫病條辨』에도 반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內經』의

“冬不藏精，春必溫病”，“藏於精者，春不溫病” 등을 인용하여 溫病에는 精氣의 虛가 선행됨을 언급하였는데,<sup>94)</sup> 이 또한 劉完素가 溫熱病에서 腎水를 중요시한 부분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溫病이 上焦인 肺에서 시작하고,<sup>95)</sup> 上焦病이 낫지 않고 中焦病이 낫지 않을 때 下焦의 肝, 腎으로 전한다고 하였는데,<sup>96)97)</sup> 여기에서 肺가 末이 되고 腎이 본이 된다는 『內經』의 구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肺와 腎은 모두 水를 쌓는다고 하였으니,<sup>98)</sup> 溫熱邪가 陰氣를 손상시키는 주체라고 보았을 때,<sup>99)</sup> 水를 저장하는 말단의 臟인 肺부터 침범하기 시작하여 병이 진행되어 갈수록 본이 되는 腎陰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상 과정에서 肺에서 下降하여 腎에 승하는 精氣의 흐름을 따라 병이 전변되고, 그 경로가 三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溫病의 辨證綱領으로써 三部位 구분을 ‘三焦辨證’이라고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三焦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溫熱病에서 주목하는 三焦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대략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추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溫熱病은 人體의 陰을 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腎陰을 손상시킨다. 인체의 陰을 만들어 내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하는 臟은 肺와 腎이며 그 水液의 升降을 보자면 肺에서 下降하고 腎에서 上升한다. 그리고 이 두 臟 가운데에서 도량 역할을 하는 것이 三焦이다.

9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8. “經謂冬不藏精, 春必病溫, 又謂藏於精者, 春不病溫, 又謂病溫虛甚死, 可見病溫者, 精氣先虛.”

9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凡病溫者, 始於上焦, 在手太陰.”

96)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上焦病不治, 則傳中焦, 胃與脾也; 中焦病不治, 即傳下焦, 肝與腎也.”

97) 少陰이 精을 감무리하고 陰精이 충족된 후에 厥陰이 생한다고 하여 ‘乙癸同源’이라 하였으니,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42. “蓋少陰藏精, 厥陰必待少陰精足而後能生, 二經均可主以復脈者, 乙癸同源也.”) 비록 肝, 腎 두 臟을 언급하였지만 陰을 중심으로 다루는 의미해서 肝, 腎을 대표하는 臟으로 腎을 꼽아 설명하여도 큰 비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3.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

9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溫熱, 陽邪也, 陽盛傷人之陰也.”

그런데 溫熱病의 시작은 上部의 肺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精氣의 흐름을 따라 궁극적으로 下部에 있는 腎陰을 손상시키기 위해 아래로 전변된다. 이에 대한 治療原則으로는 水升火降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三焦가 매개가 되는 水液代謝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三焦相火나 溫熱邪로 인해 溫病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水升火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水液代謝에 관여하는 臟腑 및 氣血津液이 손상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2. 『溫病條辨』의 三焦辨證

三焦辨證 대한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吳鞠通의 溫熱病 病機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대하여 고찰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溫病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내세운 치료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三焦의 편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정리한 후에 그로 미루어 알 수 있는 三焦辨證의 특징을 고찰해 보아야 하겠다.

### 1) 『溫病條辨』의 外感溫熱病 인식

#### (1) 溫熱病機 인식

『溫病條辨』의 原病篇은 經文을 인용하여 溫病이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한 篇이다.<sup>100)</sup> 吳鞠通은 原病篇에서 溫病은 일단 溫熱之氣가 유행하는 시기에 발병함을 밝히고 있다.<sup>101)</sup> 그러면서 風寒邪가 잠복되었다가 伏氣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가 溫病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밝혔다.<sup>102)</sup> 이와 같이 新感溫病과 伏氣溫病이라는

溫病의 일반적인 발생경우를 얘기하며 傷寒과의 정확한 감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傷寒의 치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溫病을 傷寒과 혼동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실제로 傷寒에서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다. 즉 傷寒과 대비되는 溫病의 측면을 지속적으로 기술함으로 인하여 溫病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火로 치우치면 溫熱病이 되고 水로 치우치면 清寒病이 된다는 그의 서술<sup>103)</sup>이 傷寒과 溫病에 대한 시각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陰邪인 寒은 陽氣를 손상하는 반면 溫熱邪는 陰氣를 손상한다는 常理를 부각시켰다.<sup>104)</sup>

吳鞠通은 原病篇에서 溫病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면서 덩달아 精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05)</sup> ‘不藏精’하는 것을 溫病 발생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精氣를 잘 감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五藏의 精氣를 요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106)</sup> 이는 溫熱邪가 陰氣를 손상시키기에 주목한 吳鞠通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溫病條辨』 곳곳에서

溫瘧, 內經已明言之矣. 亦有不因伏氣, 乃司天時令現行之氣, 如前例六元正紀所云是也. 此二者, 皆理數之常者也.” 吳鞠通은 伏氣溫病은 『內經』에 명백히 나와있다고 하면서 『溫病條辨』의 서술에서는 거의 新感溫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4. “風溫者, 初春陽氣始開, 厥陰行令, 風挾溫也. 溫熱者, 春末夏初, 陽氣弛張, 溫盛爲熱也. 溫疫者, 厲氣流行, 多兼穢濁, 家家如是, 若役使然也. 溫毒者, 諸溫挾毒, 穢濁太甚也. 暑溫者, 正夏之時, 暑病之偏於熱者也. 濕溫者, 長夏初秋, 濕中生熱, 即暑病之偏於濕者也. 秋燥者, 秋金燥烈之氣也. 冬溫者, 冬應寒而反溫, 陽不潛藏, 民病溫也. 溫瘧者, 陰氣先傷, 又因於暑, 陽氣獨發也.”)

103)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偏於火者病溫病熱, 偏於水者病清病寒”

104)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5. “傷寒, 陰邪也, 陰盛傷人之陽也. …… 溫熱, 陽邪也, 陽盛傷人之陰也.”

105)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5. “金匱眞言論曰,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春不病溫.”

106)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6. “不藏精三字須活看, 不專主房勞說, 一切人事之能搖動其精者皆是, 即冬日天氣應寒而陽不潛藏, 如春日之發泄, 甚至桃李反花之類亦是.” 겨울에 溫熱之氣가 유행하는 등 陽氣가 잘 潛藏되지 않는 기후도 ‘不藏精’의 의미로 인식하였다.

100)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1. “首卷歷引經文爲綱, 分注爲目, 原溫病之始.”

101)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4. “六元正紀大論曰: 辰戌之歲, 初之氣, 民厲溫病. 卯酉之歲, 二之氣, 厲大至, 民善暴死; 終之氣, 其病溫. 寅申之歲, 初之氣, 溫病乃起. 丑未之歲, 二之氣, 溫厲大行, 遠近咸若. 子午之歲, 五之氣, 其病溫. 巳亥之歲, 終之氣, 其病溫厲.”

102) 吳鞠通 著, 丁彰炆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5. “塘按伏氣爲病, 如春溫、冬咳、

溫熱本傷陰之病.<sup>107)</sup>

溫熱, 燥病也.<sup>108)</sup>

溫病無三陽經證, 却有陽明腑證(中焦篇已申明腑證之由矣), 三陰臟證. 蓋臟者, 藏也, 藏精者也. 溫病最善傷精, 三陰實當其衝.<sup>109)</sup>

과 같은 기술을 하여 溫病이 津液이나 陰精을 손상시키는 질병임을 거듭 강조하였고, 傷寒과 비교하자면 傷寒의 三陽經證은 나타나지 않고 三陰에 해당하는 臟의 病證과 陽明府證<sup>110)</sup>이 주로 나타나며 陰精과 관계된 '五臟'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三焦辨證이라는 總綱 하에 五臟을 중심으로 病證을 기술하고 있다.

## (2) 溫熱病 치료원칙

溫熱邪가 인체의 津液 및 陰精을 손상시킨다는 명제 하에 치료 또한 津液 및 陰精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治法에 있어서 發熱과 같은 表證에 전통적인 傷寒의 논법대로 發汗을 시킨 것이 아니라 辛涼한 약으로 解肌하였으며, 上焦病이 심하여 血分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甘寒한 약으로 涼血할지언정 무겁고 苦寒한 약으로 中, 下焦의 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中焦의 陽明溫病에 下法을 쓸 때에도 鹹寒한 약을 보좌하여 液乾한 상태를 치료하도록 하였고, 溫燥한 약은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기존의 용량보다는 적게 쓰곤 하였다. 下焦의 溫病은 津液의 지나친 손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甘潤한 약으로 津液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료원칙은 모두 陰液을 중요시한 까닭이다.

또한 병을 三焦로 구분함으로써

治上焦如羽(非輕不舉), 治中焦如衡(非平不安), 治下焦如權(非重不沈).<sup>111)</sup>

이라고 하여 上焦病의 치료는 가벼운 약으로써 하고, 中焦病은 저울대와 같이 균형 잡힌 치법으로써 하고, 下焦病은 무거운 약으로써 하도록 언급하였다. 이는 약물의 특성을 浮沈으로 구분하여 病邪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藥力이 미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바꿔 얘기해보면 三焦辨證의 總綱 하에 생각해볼 때 上部에 病邪가 있을 때에 下部의 精氣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2) 『溫病條辨』의 溫熱病 기술 내용에 나타난 三焦辨證 특징<sup>112)</sup>

일단 上焦篇, 中焦篇, 下焦篇에 해당하는 溫熱病의 증상에 대하여 - 물론 증상에 있어서 범주가 다양하므로 예외는 있겠지만 - 上, 中, 下焦의 대표적인 治法으로 각각 辛涼法, 承氣法과 增液法, 復脈法을 꼽을 수 있다. 이 말은 治法을 중심으로 볼 때, 上, 中, 下焦의 溫熱病이 예외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한 면에서 劉完素가 熱病을 병의 所在에 따라 유형을 다르게 구분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三焦辨證 체계에는 衛氣營血辨證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溫病學者들이 정리한 衛氣營血 체계를 고스란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일부 溫病學者들의 주장과 같이 분명치 못하고 번잡스러워 초학자들이 읽는 데 곤란하게 여길 수도 있다.<sup>113)</sup> 그러나

107)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92.

108)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96.

10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41.

110) 三陰에 해당하는 陰臟 위주로 溫病의 손상을 받는다고 하고서 陽明府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陽明은 시장과 같고 胃는 十二經의 海가 되며 土는 萬物이 歸依하는 곳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陽明如市, 胃爲十二經之海, 土者萬物之所歸也, 諸病未由不過此者.")

111)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693.

112) 三焦辨證의 대략적인 특징의 기술 전에 上焦篇, 中焦篇, 下焦篇의 溫熱病 기술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였으며 이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그 내용이 있다. (김상현.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3) 趙紹琴, 胡定邦, 劉景源 編著, 이용범, 신영일, 방정균, 정장현 譯. 國譯 溫病縱橫.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6. p.50.

『溫病條辨』의 衛氣營血辨證이 기존의 溫病學 변증 방식대로 衛分, 氣分, 營分, 血分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衛氣分과 營血分을 구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三焦辨證이라는 總綱 하에 表裏辨證의 개념으로써 衛氣營血辨證이 내포되어 臟腑 중심의 辨證과 융합되어 기술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衛分, 氣分, 營分, 血分の 정확한 분류보다는 대략적인 衛氣分과 營血分 구분으로써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輕重의 구분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자면, 太陰溫病에 소위 衛分證, 氣分證으로 언급할 수 있는 증상과 관련한 병증에서 공통적으로 辛涼法을 쓸 것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輕劑, 平劑, 重劑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營分證에 대한 부분도 溫病學者들이 營分證에 대하여 心和 心包를 중심으로 병증을 파악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분명 太陰溫病이라는 冒頭語 하에 ‘熱在營中’을 설명하였으며 營分에 熱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감별요인으로 ‘法當渴, 今反不渴’을 제시하였다.<sup>114)</sup> 여기서 미루어 추론해 보자면, 형세로 볼 때 熱은 더 重하지만 마땅히 나타나야 할 渴症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營氣가 邪熱에 의하여 쩌 오르는 것으로 설명하였고,<sup>115)</sup> 桑菊飲의 加減法의 설명에서 邪氣가 처음 營分으로 들어갔을 때 元參과 犀角을 가하도록 하였다.<sup>116)</sup><sup>117)</sup> 또한 앞서 熱邪가 營分에 있을 때의 처방으로 제시한 清營湯을 陽明溫病에서 熱邪가 血分에 있을 때에도 쓰도록 하였으며<sup>118)</sup> 그러한 조문 속에서 血分證에 갈증이 나지 않는 이유를 앞서 太陰

溫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19)</sup> 결국 營分證과 血分證에 대하여 크게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衛氣分證과 營血分證의 구분이 상대적이면서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초학자들에게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만큼 吳鞠通의 辨證體系에서는 衛氣營血의 정확한 구분보다 臟腑 중심으로 인체 氣機의 升降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三焦辨證에 衛氣營血辨證을 융합하였지만 上焦, 中焦, 下焦에 모두 衛氣營血로 表裏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溫病條辨』을 三焦의 綱領 하에서 衛氣營血辨證으로 구체적 구분을 한 劉는 上焦篇에서는 衛分, 氣分, 營分, 血分證으로, 中焦篇에서는 氣分, 營分, 血分證으로, 下焦篇에서는 營分, 血分證으로 항목을 삼아 病證을 구분하고 있다.<sup>120)</sup> 본 논문의 『溫病條辨』이 분절적인 衛氣營血辨證을 하지 않았다는 논지와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營血分證은 下焦를 비롯한 三焦 전반에 나타날 수 있더라도 衛氣分證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병이 下焦로 전변되면 보기 힘들다는 맥락에서는 유사한 논지이다.<sup>121)</sup> 또한 上, 中, 下焦의 공통적인 營血分證 治法을 보면 腎水를 자양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藥物의 가미가 보이는데, 이는 비록 部位에 따라 다른 증세를 보여도 溫熱病이 重하여 營血分까지 영향을 미칠 때에는 治法이 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腎水를 補함으로써 亢盛한 陽火를 억제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虧損된 陰精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의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中焦의 증상은 더더욱 분절적인 衛氣營血辨證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애초에 大承氣湯이나 增液承氣湯의 方論에 이 처방들은 氣血을

114)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53. “十五. 太陰溫病, 寸脈大, 舌絳而乾, 法當渴, 今反不渴者, 熱在營中也, 清營湯去黃連主之.”  
11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53. “蓋邪熱入營, 蒸騰營氣上升, 故不渴”  
116)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49. “舌絳, 暮熱, 甚燥, 邪初入營, 加元參二錢, 犀角一錢”  
117) 『溫病條辨』에서 설명하는 방식에 의하면 元參은 腎水를 복돋아 火를 억제하는 약물이고, 犀角은 下焦의 血分으로 들어가 邪熱을 清泄하는 약물이다.  
118)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97. “二十. 陽明溫病, 舌黃燥, 肉色絳, 不渴者, 邪在血分, 清營湯主之. 若滑者, 不可與也, 當於濕溫中求之.”

119)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97. “溫病傳裏, 理當渴甚, 今反不渴者, 以邪氣深入血分, 格陰於外, 上潮於口, 故反不渴也.”  
120) 劉景源. 溫病條辨 通俗講話.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p.46-225.  
121) ‘下焦氣分’에 대한 내용이 下焦篇 濕溫門에 나오기는 하지만, 溫熱病類의 기술에는 下焦 陰液의 虧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下焦 氣分證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같이 치료하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였고,<sup>122)</sup> 일반적인 陽明溫病의 경우 邪熱의 結滯와 液乾이 동반되기 때문에 熱結을 蕩滌하면서 동시에 水氣를 운행하게 하여 津液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中焦의 溫熱病 치료를 저울대와 같이 하라는 의미는 곧 邪熱의 亢盛한 정도와 陰液의 손상 정도에 따라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을 잘 따져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上焦에서 下焦로 내려갈수록 營衛氣血에 따른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靈樞營衛生會』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라는 구절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생리적인 상태에서 三焦 營衛氣血의 象을 霧, 漚, 瀆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上焦에서는 下部에서 올라와 선포된 營衛氣血이 상대적으로 陽化되어 안개와 같이 밀도가 낮으므로 溫熱邪에 손상을 받더라도 輕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下焦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아져 溫熱邪에 의한 손상이 보다 직접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營血分證과 같은 重證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溫病條辨』의 溫熱病 기술 과정에 上焦, 中焦의 경우와는 달리 ‘下焦血分’이라는 용어가 종종 보이는 것이 그러한 반증이 될 수 있겠다.<sup>123)</sup>

또한 치법에 있어서 升降을 염두에 둔 方論이 두드러진다. 太陰溫病의 衛氣分證이나 陽明溫病 중 邪氣가 表에 가까운 경우는 辛涼한 약으로써 肺氣를 하강하도록 하여 三焦의 水液代謝가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 溫熱邪가 풀리도록 하였다. ‘逆傳心包’에서 ‘逆傳’의 의미 또한 정상적인 氣機升降의 道를 따르지 않고 心陰이 약해진 틈을 타 전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이면에서 ‘順傳’이라 할 수 있는 下降의 주체에 肺, 胃가 있고 下降하는 氣가 腎까지

연결된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인 陽明溫病에서는 熱結을 淸解하고 津液을 보존하는 것이 보통의 治法이라 하였는데, ‘津液의 보존’과 관련한 약물의 설명을 방론에서 ‘腎水を 올려 肺를 적신다’고 표현하였으니 정상적인 水液代謝의 升降을 이름으로써 津液의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下焦의 溫病은 기본적으로 腎水 및 肝의 陰液이 虧損된 상태이기 때문에 下焦의 陰을 구원하는 治法이 바탕이 되며, 心火가 亢盛한 증상이 보일지라도 陰을 견고하게 하여 陽이 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이 앞서 三焦辨證의 三焦 의미를 모색하면서 언급한 ‘水升火降’의 개념이 『溫病條辨』의 溫熱病 인식에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上焦, 中焦, 下焦의 대표적인 치법이라 할 수 있는 辛涼法, 承氣法과 增液法, 復脈法은 앞서 劉完素가 三消의 治法을 각각 肺氣流行, 下法, 養血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 또한 궁극적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水液代謝를 회복함으로써 生化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 III. 考察

지금까지 『溫病條辨』의 溫熱病에 대한 三焦辨證의 의미를 중점으로 고찰해 보았다. 논술 과정에서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이 劉完素의 火熱病機學說에서 유래했음을 밝혔고, 吳鞠通 뿐만 아니라 葉天士 또한 三焦辨證의 원류를 劉完素의 學說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그러한 劉完素의 火熱病機學說이 『溫病條辨』에서 말하는 濕熱病類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溫熱病類와 유관한 부분이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三焦辨證이 劉完素의 火熱病機學說을 거쳐 葉天士, 吳鞠通에 이어진 것이며, 吳鞠通이 溫熱病類와 濕熱病類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새롭게 고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溫熱病類에 대한 三焦辨證의 의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기존 溫病學者들이 三焦辨證은 濕熱病類를 辨證하기에는 적합하지만 溫熱病類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마땅히

122)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87, 595. “非真正實熱蔽竊氣血俱結者, 不可用也.”, “以增液合調胃承氣湯, 緩緩與服, 約二時服半杯沃之, 此一腑中氣血合治法也.”

123)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파주시. 집문당. 2004. p.538, 648, 675. “熱病七八日, 脈微小者, 邪氣深入下焦血分,”, “犀角味鹹, 入下焦血分以淸熱,”, “熱地守下焦血分, …… 當歸通下焦血分”

衛氣營血辨證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溫熱病을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해 보아야 하고, 그래야만 쟁점이 된 부분을 파악하여 溫病에 접근하는 데에 효과적인 辨證體系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衛氣營血辨證의 대략적인 의의를 살펴보자면, 네 단계의 특이적인 證候의 개괄로 인식할 수 있고 溫病의 발전 변화 및 病位의 淺深, 正邪의 盛衰를 설명하여 論治의 근거를 삼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sup>124)</sup> 그러한 의의 하에 구체적인 溫病의 기술 또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逆傳心包’를 衛分證에서 곧장 營血分證로 傳變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營分證의 치료에 ‘透熱轉氣’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등 衛氣營血辨證하에 설명이 가능한 病理機轉 및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衛氣營血辨證은 溫熱邪氣가 正氣에 미친 損害程度로써 疾病의 진행과 예후를 辨證하는 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며,<sup>125)</sup>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질환에 바로 빠르게 대응하여 치료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주장<sup>126)</sup>이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衛氣營血辨證은 溫病學을 邪氣 중심 의학으로서 인식하는 데에 주축이 되는 학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淸代 이후 확립된 中醫學的 辨證論治를 적용하기에 衛氣營血辨證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衛氣營血辨證은 특이적 증상에 따라서 證候를 분절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다시 그 안에서 臟腑의 寒熱虛實에 따라 분류하여 中醫學的 辨證論治 체계에 맞추어 症狀, 辨證名, 治法을 일관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의 온병학 서적들<sup>127)</sup>은 그러한 구성으로 溫熱病을 설명하고 있다.

124) 崔三變, 朴贊國. 溫病學. 서울. 성보사. 1989. p.57.

125) 崔三變, 朴贊國. 溫病學. 서울. 성보사. 1989. p.57.

126) 백유상. 영위음양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 2010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0. p.144.

127) 『溫病縱橫』, 『溫病條辨 通俗講話』가 이에 속한다. 특히 『溫病條辨 通俗講話』는 『溫病條辨』을 기준으로 하여 三焦를 綱으로 삼되, 임의적으로 衛氣營血로써 目을 삼고 거기서 다시 辨證論治하는 형식으로 분류를 피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의 三焦辨證은 일반적인 邪氣 중심 의학으로서의 溫病學을 설명하는 것과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다. 三焦辨證의 三焦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 溫熱邪가 精氣의 흐름을 따라 전변되는 경로라고 언급함으로써 邪氣를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臟腑의 生理病理的 機能場이면서 동시에 水升火降의 매개역할을 하는 水道라고 고찰한 부분에서는 邪氣 중심의 의학이라고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精氣 중심의 五藏辨證과 더 유관하다. 때문에 衛氣營血辨證의 장점으로 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질환에 빠른 대응 및 치료에 유리하다는 부분이 三焦辨證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경감될 수 있다. 또한 上, 中, 下焦의 구분이 生理的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절적인 病證 분류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sup>128)</sup> 때문에 溫熱病에 대한 中醫學的 辨證論治 체계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三焦辨證 보다는 衛氣營血辨證을 채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三焦辨證의 단점으로만 부각될 부분은 아니다. 五藏의 精氣를 중시하는 金元四大家의 의학을 이어받아 外感溫熱病에 대해서도 正氣 보존을 위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sup>129)</sup> 外感溫熱病이 변화가 빠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체의 精氣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고가 바탕이 될 필요성도 있다. 溫病이 인체의 陰氣를 손상시킨다는 명제를 기본으로 하는 『溫病條辨』에서는 精氣를 중시하는 시각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인체의 氣機升降을 염두에 두어 인체 생리에 대하여 인식함으로써 국부적인 치료가 아닌 全體性을 전제로 한 다방면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주지할

128) 『溫病條辨 通俗講話』에서 三焦篇에 따라 다시 衛氣營血辨證 중심의 辨證論治를 제시하였지만, 三焦辨證으로서의 개념이 포함되었다기보다는 衛氣營血辨證으로 분류한 辨證論治 구분을 上中下로 나누어 기술한 것에 가까워서 결국 크게 보면 衛氣營血辨證으로 溫熱病을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9) 그렇다고 衛氣營血辨證이 正氣 보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면에 있어서는 三焦辨證이 그러한 경향이 크다는 것이 논자의 의견이다.

만한 사항이다. 게다가 下焦의 陰精을 중시하는 관점이 眞陰 손상에 관한 病理에 대해서도 衛氣營血辨證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sup>130)</sup> 또한 『傷寒論』의 六經辨證이 비록 傷寒이라는 外感에 대한 변증으로 출발하였지만 雜病에까지 확장되었듯이 『溫病條辨』의 三焦辨證 또한 外感 뿐만 아니라 內傷 熱病의 辨證에도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131)</sup> 그렇게 된다면 精氣 중심의 韓醫學의 관점과 결합하여 韓國의 溫病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는 溫熱病의 三焦辨證에 대한 짧은 견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結論

본 논문에서는 『溫病條辨』에서 溫熱病에 대한 三焦辨證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그 원류가 되는 學說을 탐구하여 三焦의 의미를 고찰하였고, 『溫病條辨』 내의 外感溫熱病 인식 및 病證 기술 내용을 연구하여 三焦辨證의 특징을 도출해 내었다. 정리 및 고찰의 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劉完素의 火熱病機에 대한 학설의 특징은 熱氣가 玄府에 拂鬱되어 升降出入이 실조되는 玄府說이 중심이 되는데, 拂鬱된 熱氣의 所在에 따라 熱病의 유형이 다르고 이를 上, 中, 下에 해당하는 臟腑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治法을 上, 中, 下에 따라 달리 하여 궁극적으로 津液 구제와 원활한 升降出入을 治療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熱病은 인체 上部의 문제로부터 시작함을 인식하였다. 이는 『溫病條辨』에서 溫熱病을 臟腑 중심으로 기술하여 生理病理적 機能場 개념으로 ‘三焦’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 때 三焦는 辨證 總綱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三焦’에 辨證 總綱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吳鞠通이 臟腑 중심의 辨證을 ‘三焦’라고 이름 붙인 연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臟腑로서 三焦의 의미를 고찰해 본 결과, 『溫病條辨』에서 濕病과 溫熱病에서 주목한 三焦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 濕病에서는 臟腑 중심이 아닌 病所로서 三焦의 개념을 인식하여 三焦疾患을 언급하였다. 溫熱病에서는 肺에서 腎으로 精氣의 흐름을 따라 溫熱邪가 전변하는 경로이자 水升火降의 매개역할을 하는 水道라고 인식하였다.
3. 『溫病條辨』에서는 溫熱邪가 陰氣를 손상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인체 精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精氣가 잘 갈무리되지 못한 것과 五藏의 精氣를 요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溫病의 원인이 됨을 주장하였고, 때문에 陰精과 관계된 ‘五臟’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三焦辨證이라는 總綱 하에 五藏을 중심으로 病證을 기술하였다. 그래서 치료 또한 津液 및 陰精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上, 中, 下焦篇의 溫熱病에 대한 대표적 治法으로 辛涼法, 承氣法과 增液法, 復脈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병의 所在에 따라 熱病의 유형을 구분했던 劉完素의 學說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4. 『溫病條辨』의 三焦辨證 체계에는 衛氣營血辨證이 반영되어있으나 기존의 溫病學 辨證방식과는 달리 三焦辨證이라는 總綱 하에 表裏辨證의 개념으로써 衛氣營血辨證이 내포되어 臟腑 중심의 辨證과 융합되어 기술되었고, 衛氣營血의 본질적인 구분

130) 衛氣營血辨證 하에서 眞陰 손상 기전에 대한 설명을 衛, 氣, 營, 血의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元氣가 소모되어 만성적인 질병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金南一 外 11名. 實用 溫病學. 서울. 정담. 2001. p.66.) 이는 三焦辨證의 下焦溫病에 대한 기술에서 下焦 陰液 虧損을 매우 위급하게 인식한 부분이 眞陰 보존에 대한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131) 吳鞠通도 『溫病條辨』이 비록 內傷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六經辨證과 三焦辨證의 一縱一橫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주시. 집문당. 2004. p.691. “傷寒論六經, 由表入裏, 由淺入深, 須橫看. 本論論三焦, 由上及下, 亦由淺入深, 須豎看, 與傷寒論爲對待文字, 有一縱一橫之妙. 學者誠能合二書而細心體察, 自無難識之證, 雖不及內傷, 而萬病診法, 實不出此一縱一橫之外.”)

보다 臟腑 중심으로 인체 氣機의 升降을 중요시 하였다. 上焦에서 下焦로 내려갈수록 衛氣營血에 따른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三焦에 따른 營衛氣血의 집적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溫病條辨』의 溫熱病 인식 및 治法에는 三焦辨證의 ‘水升火降’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5. 고찰을 통해 溫熱病을 衛氣營血辨證과 三焦辨證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衛氣營血辨證은 네 단계의 특이적인 證候의 개괄로써 溫熱邪氣가 正氣에 미친 損害程度로써 疾病의 진행과 예후를 辨證하는 邪氣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질환에 바로 대응하여 치료하는 데에 유리하다. 또한 中醫學的 辨證論治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기에는 특이적 증상에 따라서 證候를 본질적으로 구분한 衛氣營血辨證이 용이하다. 臟腑의 生理病理의 機能場이면서 동시에 水升火降의 매개역할을 하는 水道로서의 三焦가 중심이 되는 三焦辨證은 전통적인 精氣 중심의 五藏辨證과 더 유관하며, 치료에 임할 때 인체의 精氣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었다. 또한 인체의 氣機升降과 같은 생리적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질환의 국부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三焦辨證體系의 장점을 살려 精氣를 중시하는 韓醫學과 자연스럽게 융합한다면 韓國의 溫病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 참고문헌

### <논문>

1. 崔三燮, 朴贊國, 洪元植.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관한 연구. 慶熙韓醫大論文集. 1987. 10. p.446, 449
2. 정창현. 온병조변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1). p.81.
3. 백유상. 영위음양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0. p.144.
4. 김완희, 김광중. 三焦에 대한 생리학적 고찰. 동서의학. 1985. 10(3). p.75.
5. 박찬국. 三焦와 相火.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88. 2. p.17.
6. 이경호, 안규석. 장중경의 삼초 인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1. 6. p.218.
7. 조성규. 吳鞠通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醫院 碩士學位論文. 2004. pp.56-67, 124-125.
8. 李劉坤. 吳鞠通溫病三焦辨證的特點和意義. 浙江中醫雜誌. 1999. 10. pp.415-417.
9. 羅素華. 吳鞠通濕溫病辨治規律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9. pp.24-28.
10. 朱平. 葉天士論溫病三焦辨治淺探. 湖北中醫學院學報. 2001. 3(1). pp.11-12.
11. 朱云, 史恒軍. 三焦辨證源流淺探.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3). pp.8-10.
12. 張宏勇, 張勤, 孫守才. 吳鞠通論治濕溫的特色. 山西中醫學院學報. 2009. 10(1). pp.8-9.
13. 王紫陽. 淺評吳瑭的學術思想. 江蘇中醫. 1995. 16(11). pp.36-37.
14. 趙文蘭. 趙紹琴教授治療溫病濕溫病的經驗選介. 中國醫刊. 1999. 34(9). pp.49-50.

### <단행본>

1.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경기도 과주시. 집문당. 2004. p.531, 532, 549, 553, 554, 558, 569, 586, 587, 589, 592, 612, 616, 617, 648, 675, 691, 693. pp.534-538, 544-546, 595-597, 606-609, 641-643.
2. 葉天士 著. 增補臨証指南醫案.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p.148, 183, 193, 216, 229, 482, 483.

3.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1, 361, 369, 479, 481, 548, 581. pp.444-447,  
639-641.
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  
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3, 219, 244.
5. 崔三燮, 朴贊國. 溫病學. 서울. 성보사. 1989. p.57,  
61.
6. 趙紹琴, 胡定邦, 劉景源 編著, 이용범, 신영일,  
방정균, 정창현 譯. 國譯 溫病縱橫. 경기도 과주시.  
집문당. 2006. p.49, 50, 338.
7. 金南一 外 11名. 實用 溫病學. 서울. 정담. 2001.  
p.66, 73, 74
8. 張志聰 編註. 李元起 懸吐.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51.
9.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一中社. 1988.  
p.363, 364.
10. 太醫局 原編著, 柴金苗, 張東波 主編. 太平惠民  
和劑局方精要. 貴陽. 貴州科學技術出版社. 2007.  
p.249.